**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데이터 시각화 및 에코 챌린지를 통한 교내 급식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 | | |
| | 키 워 드 | - 급식 잔반, 데이터 시각화, 탄소중립, 환경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 | | |
| | 문제상황 | ▪ 문제 발생 배경: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기호에 따른 편식,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매일 막대한 양의 급식 잔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낭비를 넘어, 처리 비용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 심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br><br>▪ 문제 상황 설명: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 교사나 담임 교사의 일방적인 잔반 줄이기 지도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잔반 데이터가 학생들에게 가시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br><br><br><br>제미나이 활용 AI 이미지(26.6.8) | | |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 해결 필요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내 급식 잔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해 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진단할 기회가 필요하다. 학부생 예비교원과 협력하여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에코 챌린지나 테크 기반의 보상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 | | |

<table>
<tr><td></td><td></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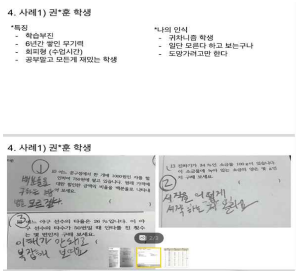

제미나이 활용 바이브코딩 앱 프론트엔드(26.6.8)<br>
▪ 기대효과<br>
- 학생 측면: 데이터 분석 역량과 환경 감수성을 동시에 함양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br>
- 예비교원 측면: 실제 학교 현장의 환경 및 교육적 현안을 깊이 있게 인지한다. 나아가 이를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와 융합하여 정규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학습 혁신 역량을 기른다.
</td></tr>
<tr><td></td><td>필요역량</td><td>▪ 필요역량: 문제인식 역량, 데이터 수집 및 분류 능력, 협동적 의사 소통 능력, 일상생활 속 실천 의지<br>▪ 예비교원 필요역량: PBL(문제기반학습) 수업 설계 및 퍼실리테이터 역량, 데 이터 시각화 도구 활용 능력,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촉진 역량</td></tr>
</table>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학령인구 급감 지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작은 학교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 |
| | 키 워 드 | 학령인구 감소, 작은 학교, 학습권 보장, 교육 격차, 지역 사회 연계 | | | |
| | 문제상황 | 1. 문제 상황<br>부산은 일자리 감소, 저출산,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빠르게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학급 수 축소 더 나아가 학교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산교육청 일반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 초등학생 수는 13만 7천명 정도이며,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30년쯤에는 9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br>또한 부산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자료에서도 2010년 대비 2021년 부산 전체 학령인구가 31.8%로 감소했고, 중구, 영도구, 서구 등 원도심 지역의 감소 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br>15년 이상 초등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체감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 기능 감소, 지역의 돌봄 기능 약화, 아이들의 관계망 축소라는 문제점 등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활권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 안전망의 중심이다. 이에 작은 학교 문제는 행정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br><br>2. 문제 상황 설명(원인, 제약 조건)<br>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다양성, 또래 관계 형성, 방과후 학교 운영, 기초학력 지원, 예술·체육·디지털 교육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수가 적으면 다양한 모둠 활동, 협력 학습, 또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방과후 학교나 체험활동도 수요가 부족하여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배움의 선택권과 경험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 원도심 인구 유출,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 학교 규모 중심의 운영 체계에 있다.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는 학교별 학생 수 감소, 제한된 교원·공간·예산,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수요 부족, 지역 기관과 학교 간 협력 구조의 미흡함 등이 있다. 따라서 작은 학교 문제는 학교를 유지하느냐? 폐교하느냐??의 이분법적인 태도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재구성의 문제로 볼 필요성이 있다. | | | |

<table>
<tr><td></td><td></td><td>
3. 관련 기사 제공<br>
부산일보, 2025.10.9., 「2030년 부산 초등생 9만 명… 코앞 닥친 ‘학생 없는 교실’」<br>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2618414408727<br>
4. 원도심 지역(서부산) 교실 및 학력관련 사진<br>
<table>
<tr>
<td><br>학생들 단원 평가 결과</td>
<td><br>원도심 학생들의 정서 상황</td>
<td><br>방과후 담임교사와 하는 수학 원리 이해 수업</td>
</tr>
</table>
</td></tr>
<tr><td></td><td>해결필요성<br>/기대효과</td><td>
1. 필요성<br>
본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 지역의 작은 학교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 수 감소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통학 여건, 방과후・돌봄 지역 기관 연계, 학부모 인식 등을 조사하여 ‘학습권 보장형 작은 학교 재구성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br>
2. 기대효과<br>
첫째, 작은 학교 학생의 학습 기회와 정서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br>
둘째, 학교 통폐합 논의에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지역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br>
셋째, 지역도서관, 복지관, 대학, 마을 교육 공동체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br>
넷째, 부산의 원도심・서부산・영도 지역의 교육 격차 완화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d></tr>
<tr><td></td><td>필요역량</td><td>교육통계와 지역 자료를 해석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역량, 작은 학교와 통합학교 사례를 비교하는 현장 조사 역량, 초등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습권 분석 역량, 지역사회 기관과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협업 역량, 조사 결과를 정책 제안서・인포그래픽・발표 자료로 정리하는 의사소통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td></tr>
</table>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table>
<tr><th colspan="6">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 문제제안서</th></tr>
<tr><td rowspan="4">현장<br>전문가<br>정보</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td><td>E -mail</td><td></td></tr>
<tr><td>소 속</td><td>■ 현직교원</td><td>□ 교육전문직</td><td>소속기관</td><td></td></tr>
<tr><td>직 급</td><td colspan="2">교사</td><td>담당교과 / 직무</td><td></td></tr>
<tr><td>제안내용</td><td>주 제</td><td colspan="4">생성형 AI 및 SNS 이용 규제와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확립</td></tr>
<tr><td></td><td>키 워 드</td><td colspan="4">디지털 규제, SNS 과의존, AI 윤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td></tr>
<tr><td></td><td>문제상황</td><td colspan="4">




-문제 발생 배경<br>
최근 ChatGPT 등 생성형 AI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보급의 보편화로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발달 수준은 미성숙하여, 기술 오남용과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교육 현장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br>
이미 글로벌 교육 선진국인 노르웨이 등에서는 생성형 AI가 초등 단계 아동의 독립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내심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3세 이하 초등학생의 학교 내 AI 도구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국내 교육 현장은 이러한 디지털 과의존과 윤리적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나 규제 매뉴얼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가 생활 지도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막고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과 방식은 학교가 학칙으로(학교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폰 없이는 노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설계에 대한 시스템 기반 규제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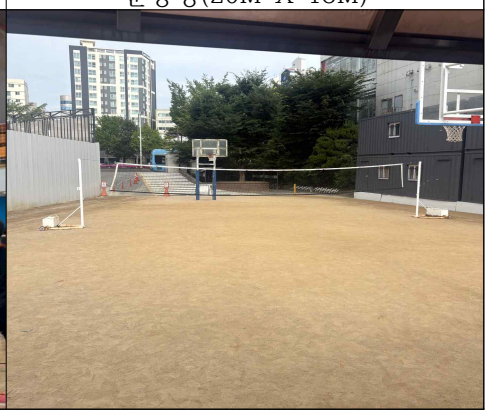
| | | |
|---|---|---|
| | | -문제 상황 설명<br>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오남용과 윤리 의식 부재로 과제나 일기, 독후감 등을 생성형 AI로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학습 태만 및 연구 윤리 위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BS뉴스(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유포…경찰 협조 거부에 처벌도 못해, 유영규 기자, 2024.08.29. 13:20)에 따르면, AI를 이용한 동급생 및 교사의 딥페이크(가짜 이미지·영상)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심각한 디지털 범죄가 교실까지 확산되고 있다. 알고리즘을 통한 자극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에 중독되어 주의집중력 저하(팝콘 브레인 현상) 및 문해력 저하를 겪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공식 이용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 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한국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어려우나 나이 제한 규정을 우회하여 SNS 계정을 개설한 후, 사이버 불링(따돌림), 언어폭력,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울증 등 정서적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해결 필요성<br>첫째, 초등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기준 확립으로 현재 대부분의 AI 및 SNS 플랫폼은 만 14세 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학교와 가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초등학생 맞춤형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한다.<br>둘째, 수동적 규제를 넘어선 '디지털 시민 교육'의 부재로 단순히 무조건적인 차단과 금지만으로는 우회 경로를 찾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다. 기술을 올바르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현장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왜 나이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br>셋째, 교사의 지도 권한과 보호 장치 마련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AI·SNS 오남용을 제지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과 교사의 권한이 확립되어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br>-기대 효과<br>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AI 윤리 교육과 SNS 가이드라인 확립을 통해 사이버 폭력 및 딥페이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br>둘째, 자기주도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올바른 활용법을 배움으로써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학습의 도구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br>셋째, 정서적 안정 및 학습 몰입도 향상을 통해 스마트폰 및 SNS 과의존을 완화하여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대면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을 늘리고, 교실 내 학업 집중도와 문해력을 회복할 수 있다.<br>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정의 일관된 지도 체계 구축으로 명확한 규제 기준과 교육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일관성 있는 디지털 생활 지도가 가능해진다. |
| | **필요역량** |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및 윤리 의식, 상호작용 및 조절 역량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공간 제약형 학교를 위한 AI 기반 ‘틈새 신체활동’ 맞춤형 솔루션 개발** | | | |
| | 키 워 드 | AI・디지털교육, 교육시설혁신, 지역사회연계, 개별화수업 | | | |
| | 문제상황 | **■ 문제 발생 배경**<br>-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개별화 수업의 요구**: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신체활동’과 ’종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br>- **공간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운동장이 대폭 축소(20m x 18m)되고 교내 체육관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적 독립성이 상실되었습니다.<br>- **디지털 전환의 역설**: AI 마스터교원으로서 에듀테크(동료 평가 웹앱, crossfit 기록 관리 웹앱 등)를 수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자칫 기기 조작 및 이론 학습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육 수업의 본질인 ’실질적 신체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br><br>**■ 문제 상황 설명 (원인 및 제약조건)**<br>**1.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신체활동의 불연속성**<br>- 정규 수업은 지역사회(부전교회) 시설 대관을 통한 블록타임제로 유지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상적인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신체활동을 수용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규 수업 시간의 종목 선택권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br>**2. 운동 기능 격차에 따른 개별화 지도 난항**<br>- 운동 기능이 다른 다수의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의 신체 여건에 최적화된 운동 강도와 종목을 처방해주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미비**합니다.<br>**3. 신체활동의 양극화 현상**<br>- 공간 제약으로 인해 종목이 단순화되면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이나 특정 종목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신체활동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관점의 개별화 처방**이 시급합니다.<br><br>이 문제는 본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겪는 **도심 내 다수의 학교가 공통으로 직면할 선제적 과제**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기술과 지역 자원 협력으로 극복하는 ’도심형 미래 체육 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table>
<tr><td rowspan="4">제안내용</td><td>주 제</td><td colspan="2">공간 제약형 학교를 위한 AI 기반 ‘틈새 신체활동’ 맞춤형 솔루션 개발</td></tr>
<tr><td>키 워 드</td><td colspan="2">AI・디지털교육, 교육시설혁신, 지역사회연계, 개별화수업</td></tr>
<tr><td>문제상황</td><td colspan="2">■ 관련 사진<br><table><tr><td>부전교회 체육관</td><td>운동장(20M X 18M)</td></tr><tr><td></td><td></td></tr></table></td></tr>
<tr><td>해결필요성 /기대효과</td><td colspan="2">해결필요성: 공간의 제약이 학생의 ’신체활동 권리’와 ’종목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AI 기술이 이를 보완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어야 함.<br>기대효과: 도심형 소규모 학교의 체육 교육 모델 제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체육 교육 실현.</td></tr>
<tr><td>필요역량</td><td colspan="2">PBL 기반의 문제해결 능력, AI/에듀테크 활용 역량,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능력</td></tr>
</table>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수석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학생 주도성 및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질문하는 수업 방안 | | | |
| | 키 워 드 | 질문하는 수업, 학생 주도성, 질문 생성 전략, 사고 전략(Thinking Routine) | | | |
| | 문제상황 | 1. 문제 발생 배경<br>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주도성과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로 '질문'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정답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는 수업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br>2. 문제상황<br>1) 학생 측면<br>① 질문하는 행위를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질문하기를 주저함.<br>②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질문하는 방법을 모른 경우가 많음.)<br>③ 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의하여 탐구 질문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전이가 이루어지지 못함.<br>2) 교사 측면<br>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대한 학습량으로 인한 수업 연구 시간 부족<br>②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는 적절한 질문(발문) 기법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 질문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부담<br>→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만든 질문에 답하며 탐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또한 질문을 수용하는 교실 문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임. | | |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1. 해결 필요성<br>질문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이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질문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질문 생성 전략과 사고 전략을 개발하고, 수업의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br>2. 기대효과<br>1) 질문 생성 전략(왜?, 만약에?, 어떻게?, 나라면?) 활용을 통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누구나 쉽게 질문을 만드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br>2) 사고 전략(C-E-C, 예전 생각-지금 생각 등)을 적용하여 학생 스스로 사고를 시각화하고 심화하는 습관을 기르게 함으로써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br>3) 예비 교사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질문 놀이(까바놀이, 질문 비행기 등)를 운영하여 즐거운 질문으로 학습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 | |

| | | |
|---|---|---|
| | **필요역량** | 1. 교육과정 분석 및 질문 설계 역량<br>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핵심 질문과 안내 질문(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을 추출하고 설계하는 능력<br>2. 학생 사고 촉진 및 상호작용 역량<br>학생의 질문을 의미 있게 수용하고, Bloom의 교육목표 분류 체계 등을 활용해 사고 수준에 맞는 서술어로 질문을 변형하는 능력<br>3. 디지털 및 도구 활용 역량<br>학생 사고 전략 활동지 및 질문 생성 카드 등 다양한 수업 도우미 자료를 수업 단계에 맞춰 적용하는 능력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복합적 위기학생의 학교 부적응 예방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조기발굴 프로토콜 및 지역사회 연계형 통합 멘토링 방안 모색 | | |
| | 키 워 드 | - 학생맞춤통합지원, 위기학생 조기발굴, 지역사회 연계, 복합적 요인, 학교 부적응 예방 | | |
| | 문제상황 | 1. 문제 발생 배경<br>최근 학교 현장에는 경제적 빈곤, 돌봄 결손,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을 중첩적으로 안고 있는 위기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적된 결핍으로 인해 학교폭력, 학업 무기력 등 심각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집니다. 분절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실무에서도 학생의 복합적 결핍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채워주었을때, 표면적 부적응 행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br>2. 문제상황 설명 (원인 및 제약조건)<br>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학교폭력 및 부적응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은 '담임교사에 의한 민감한 조기발굴'과 '학교 내 통합 지원팀을 통한 지역사회 전문 자원으로의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연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약들로 인해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br>① 비가시적 징후 포착의 어려움과 물리적 한계<br>보통 20명 안팎의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 환경에서 담임교사는 밀도 높은 교과 수업과 방대한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위기학생이 보내는 신호 ( 갑작스러운 과제 미수행, 쉬는 시간의 고립,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잦은 지각 등)는 매우 미세하고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화된 진단도구 없이 교사 의 '개인적인 직관'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조용 한 위기학생'이나 '은둔형 부적응 학생'은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기 쉽습니다.<br>② 낙인효과(Stigma)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진입 장벽<br>담임교사가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개입 과정에서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전통적인 복지 지원이나 상담 의뢰 방식은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취약계층', '문제아'로 낙인찍힌다는 강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선제적 개입을 사생활 침해로 여기며 강하게 저항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대상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면서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통합지원망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현장 친화적인 초기 개입 프로토콜'이 부재하여 섣불리 지원을 제안하기 어렵습니다.<br>③ 사후 약방문식 대처와 '교실 내' 일상적 융합 시스템 부재<br>위의 제약들로 인해 초기 징후들이 누적되고, 결국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나 '심각한 교권 침해' 등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이후에야 긴급하게 통합지원팀이 가동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렵게 발굴되어 상담실이나 복지실의 지원이 시작되더라도 정작 학생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내에서 일반 또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급 단위의 멘토링이나 융합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④ 학교와 지역사회(마을 교육공동체) 간 연계 고리 부족<br>초기 징후를 발굴하더라도, 학교 내 통합지원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대학생 멘토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결해야 하지만, 현장 교사가 지역 인프라를 한눈에 파악하고 매칭할 수 있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Mapping)'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 | | |

| | | |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1. 해결 필요성 및 예비교원(학생팀)과의 해결 과제<br>복합 위기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단순한 징계나 행동 통제가 아닌 '통합적 결핍 해소'라는 긍정적 교육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교원(학부생)들과 함께 현장의 제약을 극복할 다음의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br>① 낙인효과 없는 '조기발굴 진단 툴' 및 '지역 자원 매핑(Mapping)' 기획:<br>학생들이 놀이나 일상적인 학급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진단 도구를 고안하여 담임교사가 거부감 없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도록 돕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굴된 학생의 결핍 유형(복지, 학습, 심리 등)에 따라 학교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인프라를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매핑 가이드라인'을 함께 구축하고자 합니다.<br>② 교실 내 안착을 위한 '지역 연계형 정서-학습 통합 멘토링' 기획:<br>통합지원 대상 학생이 교실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고안합니다. 지역의 예비교원(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학급 내 또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멘토링 체계를 설계하며, 에듀테크 교구나 협동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자존감을 높이도록 구성합니다.<br>① 예비교원(학부생) 역량 강화: 단편적인 전공 이론을 넘어, 교육부의 최우선 정책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의 실제 작동 원리를 현장의 시각에서 깊이 체화하게 됩니다. 복합 위기학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낙인효과 방지'라는 현장의 민감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작동 가능한 세밀한 교육 솔루션을 설계하는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크게 함양할 수 있습니다.<br>② 현장 교원의 실질적 업무 경감 및 교육생태계 회복: 예비교원들의 참신한 시각이 반영된 조기 발굴 도구와 통합 멘토링 매뉴얼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장 담임교사들에게 즉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모두가 어울려 성장하는 평화로운 교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 | **필요역량** | ① 정책 및 시스템 이해 역량: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취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작동 구조, 학교 내 위기학생 의뢰 및 연계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br>② 다각적 분석 및 교육적 공감 역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문제행동(폭력, 일탈, 무기력 등) 이면에 숨겨진 복합적 결핍(빈곤, 방임, 기초학력 저하 등)의 인과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심층적 시야<br>③ 현장 밀착형 및 네트워크 중심 기획 역량: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낙인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 진단 도구 설계 능력,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담·복지 인프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실무적 매핑(Mapping) 및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력<br>④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관점을 융합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팀 프로젝트 협업 능력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 사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학생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적 마음건강 증진 방안 | | |
| | 키 워 드 | 사회정서학습(SEL), 에듀테크, 인성교육, 마음건강, 학생성장 | | |
| | 문제상황 | **1. 문제 상황 및 배경**<br>(1) 아동·청소년 정서적 위기 증가<br>최근 불안, 우울, 무기력 등 정서적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수행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교실 내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br>(2) 사후 처방 중심의 한계<br>현재 학교 현장의 마음건강 관리는 위기 학생이 발생한 후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하는 '사후 처방'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짐. 일상 수업 속에서 학생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상시적·예방적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br>(3) 디지털 세대를 위한 정서 도구 부재<br>감정 표현에 서툰 디지털 세대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필식 감정 카드나 일방향적 훈화 중심 인성 교육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흥미와 몰입도가 떨어짐. | |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2. 해결 필요성**<br>(1) 일상적 사회정서학습(SEL)의 도입<br>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함.<br>(2) 에듀테크 기반의 친근한 접근 필요<br>감정 기록 어플(감정일기 등) 활용, 작곡 및 미술 AI 도구를 활용한 내면 감정 분출(카타르시스) 활동, 학급 소통 플랫폼을 통한 긍정적 스트레스 해소 챌린지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마음건강 돌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br><br>**3. 기대 효과**<br>(1) 학생 측면<br>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회복탄력성이 신장되고, 공감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교실 내 폭력성·공격성이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이 가능해짐.<br>(2) 예비교원 측면<br>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학생 생활지도 및 정서 돌봄' 역량을 선제적으로 함양할 수 있으며, 교과 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미래형 학급 경영 능력을 습득하게 됨. | | |

| | | |
|---|---|---|
| **제안내용** | **필요역량** | **4. 프로젝트 참여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역량**<br>(1)사회정서학습(SEL) 및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기초 이론적 이해<br>초등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br>(2) 에듀테크 및 디지털 미디어 도구 활용·콘텐츠 설계 능력<br>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플랫폼(캔바 등) 및 생성형 AI 도구(텍스트·음악·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를 교수·학습 자료에 결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에듀테크 활용 역량<br>(3) 교육과정 연계 및 창의적 수업 재구성 역량<br>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정서교육(SEL)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안(안내서, 워크북 등)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br>(4) PBL 기반 문제 해결 및 팀 프로젝트 수행 능력<br>2~3개월간의 한정된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프로토타입(해결안)을 도출·관리해 낼 수 있는 협업 및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관리 역량 |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중학교 학업전환기 학생의 학습·정서 어려움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 방안 | | | |
| | 키 워 드 | 중학교 학업전환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지원, 학습·정서 통합지원 | | | |
| | 문제상황 |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로, 학습 내용의 수준과 속도, 평가 방식, 교과 수, 학교생활 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 입학 초기의 학습 적응이 이후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br>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주요업무계획에서 경계선지능, 난독, 난산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단위학교 통합 진단, 1:1 맞춤 심층 진단,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학습지원, 심리·정서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충학습을 넘어 학생의 인지·정서·행동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br>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역시 초·중·고 학교급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자료, 느린 학습자 관련 안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원과 제도를 모든 학생에게 적시에 연결하고, 학습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체계로 운영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br>**문제 상황**<br>중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전환기 학생 중 일부가 수업 이해의 어려움, 과제 수행 지연, 평가 불안, 또래관계 위축, 자존감 저하 등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이를 단순한 학습부진이나 태도 문제로 인식하여 적절한 시기에 심층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 또는 느린학습자 특성을 가진 학생은 눈에 띄는 장애 판별이 어려워 조기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학습 결손과 정서적 위축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단위학교 통합 진단과 1:1 맞춤 심층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r>또한 학교 차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발굴하더라도,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다. 교과 보충, 상담, 학부모 소통, 외부 전문기관 연계가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교과교사·상담교사·지원 인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부산교육청이 전문기관 및 희망피움교사 인력풀 확대, 학교로 찾아가는 1:1 맞춤 지원, 마음피움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현장 한계를 보 | | | |

| | | |
|---|---|---|
| | | 완하기 위한 것이다.<br>아울러 기초학력 문제는 단순히 학습 내용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격차와도 연결된다. 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AI 기반 수준별 지원, 부산형 인터넷 강의, 위캔두학교 등 공공 학습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실제 참여 동기, 정서 상태, 가정환경,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따라 지원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학생에게” 지원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학교 차원의 운영 모델이 요구된다.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해결 필요성**<br>중학교 학업전환기 학생의 학습·정서 어려움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면 완화 가능성이 높지만, 시기를 놓치면 학업 결손, 학교생활 부적응, 자기효능감 저하, 또래관계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등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학교가 의도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중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발견, 맞춤형 학습지원, 정서·사회성 지원, 보호자 및 전문기관 연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br>본 주제는 학생 PBL 활동과도 연결 가능성이 높다. 학생팀은 실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업전환기 학생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진단-의뢰-지원-점검의 흐름을 분석하여, 학교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절차, 체크리스트, 정보 안내 자료, 프로그램 시안 등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실행 가능성과 학생활동 적용 가능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br>**기대효과**<br>첫째, 중학교 학업전환기 학생 중 학습·정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내에서 놓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br>둘째, 교과 지원과 상담·정서 지원,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부산교육청이 제시한 통합 진단, 맞춤 심층 지원, 전문기관 연계 방향과도 부합한다.<br>셋째,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학습결손과 정서적 위축을 완화함으로써 이후 학년으로 이어지는 누적적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부산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br>넷째, 학생팀은 실제 교육현안에 기반하여 조사, 인터뷰, 문제 정의, 개선안 설계, 자료 제작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 문제해결 역량과 협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유사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매뉴얼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 | **필요역량** | 중학교 학업전환기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역량<br>기초학력,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기초 이해<br>학생·교사·보호자 대상 인터뷰 및 요구조사 수행 역량<br>학습지원 절차, 상담 연계, 외부 자원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역량<br>문제 상황을 시각화하고 실제 학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설계하는 역량<br>체크리스트, 안내자료, 운영모형 등 실천 가능한 결과물을 문서화하는 역량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생성형 AI 기반 지역정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지원하는 학생용 활동자료 및 교사용 지도자료 개발 | | |
| | 키 워 드 | - 생성형 AI, AI 리터러시, 지역정보, 정보 신뢰성 | | |
| | 문제상황 | 생성형 AI가 일상과 교육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도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제안자가 학생들과 수업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생성형 AI가 제시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정보라기보다 이미 검증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AI의 답변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제시될 경우, 학생들은 그 내용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현재에도 유효한 정보인지, 오류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br>그러나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항상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정보, 편향된 설명 또는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에는 기술의 편리함과 활용 방법만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산출물의 한계를 이해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AI 리터러시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AI 결과물을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Ng et al., 2021), 대규모 언어모델의 교육적 활용에서도 비판적 사고, 사실 확인 전략 및 지속적인 인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Kasneci et al., 2023).<br>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부산의 지형, 인구, 교통, 관광지, 역사, 환경 및 지역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정보에는 통계의 기준 연도, 시설의 운영 여부, 행정구역과 교통체계의 변화, 지역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 등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생성형 AI가 제시한 지역정보를 부산광역시와 공공기관의 자료, 국가통계, 지도, 지역 언론 및 다른 출처와 비교하기보다 그대로 학습 결과물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오류를 넘어, 학생이 자신의 생활공간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근거 없이 지역을 판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 및 지역학습의 중요한 교육현안이다.<br>초등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은 중등·고등교육과 다른 발달적·교육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초등교육에 적합한 AI 리터러시의 이론적·교수학적 틀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Yim, 2024).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AI의 작동과 활용 등 기능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 해왔으며, AI가 제시한 정보와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tias & Mawasi, 2025). | | |

| | | |
|---|---|---|
| | |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질문 방법 과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주로 안내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실제 AI 답변에서 확인이 필요한 주장을 찾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여러 출처를 비교한 뒤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 역시 이러한 활동을 어떤 지역정보와 발문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정보 검토 과정을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자료가 필요하다.<br>이에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학부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과 정보 검토 경험을 조사하고, 생성형 AI가 제시한 부산 지역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생용 활동자료와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교사가 사전에 생성한 AI 답변 사례를 수업자료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를 공신력 있는 자료와 비교・검증하도록 하는 교사 매개형 활동을 기본 방식으로 설정한다. 개발 자료는 실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학생과 교사의 의견 및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생성형 AI의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학생이 실제 정보 탐색 상황에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생성형 AI의 답변도 검증이 필요한 하나의 정보원임을 이해하고, 답변에 포함된 여러 주장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 비교하고, 확인된 근거에 따라 최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br>특히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긴 점검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이 정보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떠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다른 출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와 같은 핵심 질문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도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중등학교 생물과 지리 수업에 정보 검증 활동을 적용한 McGrew & Breakstone(2023)의 연구에서도 실제 교과 내용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를 평가하고, 출처・근거・다른 자료를 확인하는 명시적 수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원리를 초등학교 5~6학년의 언어 수준과 인지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br>또한 생성형 AI 교육은 AI가 학생의 판단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생이 기술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근거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Miao & Holmes, 2023).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활용법을 추가로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AI 산출물을 교사가 선별하여 제공하고 학생이 지역의 공공자료와 비교・검증하도록 하는 교사 매개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br>이러한 자료가 마련되면 생성형 AI 활용 여부가 개별 교사의 관심이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교사도 사회과 및 범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정보 판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실제 지역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추상적인 AI 윤리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공간과 연결된 구체적인 문제 |

| | | |
|---|---|---|
| | | 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br>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br>첫째,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생성형 AI가 제시한 부산 지역정보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학생용 활동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활동자료에는 AI 답변에서 확인이 필요한 주장 찾기, 검증할 질문 만들기, 적절한 공공자료 선택하기, 복수의 자료 비교하기, 정보의 정확성 판단하기, 근거에 따라 AI 답변 수정하기 및 판단 과정 성찰하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br>둘째, 교사가 활동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지도자료에는 차시별 수업 흐름, AI 답변 사례 선정 기준, 활용 가능한 부산지역 공공자료의 유형, 교사 발문, 예상 학생 반응, 지도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많지 않은 교사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br>셋째, 학생이 AI 답변의 옳고 그름을 맞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검토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체크리스트와 수행평가 루브릭을 마련할 수 있다. 평가 요소는 확인이 필요한 주장 식별, 출처의 적절성 판단, 자료 간 비교, 근거 활용, 판단 수정 및 판단 이유 설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AI 리터러시와 정보 검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br>넷째, 개발 자료를 실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시범 적용하고 학생 및 교사의 반응을 반영함으로써 자료의 난이도, 이해 가능성, 수업 활용성 및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생들은 설문, 면담, 수업 관찰 및 학생 산출물 분석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자료 개발과 수정에 반영하는 현장 기반 문제해결 경험을 갖게 된다.<br>다섯째, 학생들은 생성형 AI가 제시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근거를 확인하여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동시에 부산의 실제 지역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해, 자료 해석, 정보 활용 및 지리적 탐구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생성형 AI를 학생의 사고를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질문·검증·판단을 촉진하는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실천적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 | **필요역량** |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및 정보 검토 경험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면담 역량, 생성형 AI 답변과 부산 지역의 공공자료·통계·지도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 탐색 및 검증 역량, 초등학교 5~6학년의 발달 수준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시범 적용 결과와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분석 역량, 현장전문가·교사·학생과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3)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 내용 | 주 제 |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한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방안' | | | |
| | 키 워 드 | - #교원・학교문화,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심리적안정감 | | | |
| | 문제상황 | 가. 문제 발생 배경<br>1) 교육 공동체 내 신뢰 관계의 약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권리,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상호 충돌하며 교육 3주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br>2) 저출산 및 인권 의식 신장에 따른 아동의 과도한 귀중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맞물린 인권 의식의 신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녀를 향한 과도한 보호 심리와 개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동체 내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br>3) 존중과 존경심에 대한 가치 철학 부재: 과거에 비해 타인에 대한 예의나 스승에 대한 존경, 학부모에 대한 존중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가치인 '존중과 존경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현저히 부족해진 상태이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위주의 사고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고착화하고 있다.<br><br>나. 문제 상황 설명(원인 또는 제약조건이 있을시 기재)<br>1)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요구는 강해진 반면,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의무감은 약화되어 교육 주체 간의 감정적 대립이 잦아지고 있다.<br>2) 소통 창구 부재와 갈등의 고착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진솔하게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br>3) 교사의 심리적 위축과 소진: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무너진 존중의 벽 앞에서 교사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잃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 | | |

| | | |
|---|---|---|
| | | |
| | **해결 필요성 /기대효과** | 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징검다리 프로젝트의 필요성)<br>1)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 3주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학습과 인성 교육이 불가능하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br>2) 실천 가능한 존중 모델의 개발: 단순한 훈계나 구호가 아니라, 대학생 멘티들과 함께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존중과 존경의 기술'을 프로젝트 활동(PBL)으로 구현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br><br>나. 기대 효과<br>1)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복한 교실 구현: 서로의 다름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학생은 안정감을 얻고 교사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건강한 학교 생태계가 조성된다.<br>2)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 타인을 향한 존중과 존경심을 행동으로 실천해 본 경험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br>3) 지속가능한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현장 전문가(멘토)의 지도를 거쳐 도출된 상호 존중 방안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
| | **필요역량** | 학교 조직 문화 및 교육 주체에 대한 이해, 갈등 관리 역량,<br>홍보 및 캠페인 기획 능력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

**붙임1** **문제제안서**

# 2026「교육현안 발굴 프로젝트」문제제안서

| | | | | | |
|---|---|---|---|---|---|
| 현장 전문가 정보 | 성 명 | | | | |
| | 연 락 처 | | | E -mail | |
| | 소 속 | ☑ 현직교원 | ☐ 교육전문직 | 소속기관 | |
| | 직 급 | 교사 | | 담당교과 / 직무 | |
| 제안내용 | 주 제 | **클릭 전에 멈추고, 피해 전에 신고하라:** 스미싱·피싱·큐싱 대응 공백을 해소하는 디지털 사기 탐지·대응 체계 개발 | | | |
| | 키 워 드 | 스미싱·피싱·큐싱,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체험형 안전교육, 학교–가정 연계 | | | |
| | 문제상황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개인 또는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QR코드 기반 서비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게임 아이템 구매, 기프티콘 사용, 배달 주문 확인, 이벤트 참여, 간편결제 등 디지털 소비 경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금융사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은 **스미싱·피싱·큐싱을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보다 메시지의 겉모습, 로고, 익숙한 이름에 의존해 진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생활 속 사기 상황에 취약한 상태**이다.<br><br>최근의 사기 수법은 단순한 오탈자 문자 수준을 넘어 택배회사, 게임회사, 온라인 쇼핑몰, 공공기관, 학교, 가족·지인의 이름을 활용하여 정상 안내처럼 보이도록 설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싱 메일이 발신자 표시명뿐 아니라 **도메인까지 공식 기관 주소와 똑같이 사칭**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사나 보호자도 육안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축 URL, 유사 도메인, 실제 로그인 화면과 흡사한 페이지, 긴급한 행동 요구와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문구가 결합되면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도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다.<br><br>**제안자 역시 2026년 4월 학교 업무용 컴퓨터에서 '경찰청 고지 안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실제 공문성 안내로 오인하여 링크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험**이 있다. 이후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계정 보호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경험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조차 사회공학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학생에게 단순히 '모르는 링크를 누르지 마라'라고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br><br>또한 학교에서는 수업 참여, 설문조사, 행사 신청, 학습자료 접속 등에 QR코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학생은 스캔 전 주소 확인, 위조 QR코드 식별, 개인정보 입력 요구 여부 판단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번호 관리 등 **포괄적 안전교육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에서의 판별 연습, 클릭 이후의 신고·복구 절차, 학교–가정 간 일관된 대응 원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학생이 정상 메시지와 사기 메시지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의심 상황에서 확인하며, 실수 이후에도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 | | |

| | | |
|---|---|---|
| | **해결필요성 /기대효과** | 이 문제는 스미싱·피싱·큐싱이 단순한 정보윤리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가정의 개인정보, 계정, 결제수단,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생활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서비스를 스스로 활용하면서도 계약, 결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경제적 이해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피해 이후의 추궁보다 피해 이전의 예방과 실수 이후의 신속한 신고를 돕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br><br>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생 팀과 현장교사가 함께 초등 고학년용 디지털 사기 위험 신호 분류체계, 안전한 모의 스미싱·피싱·큐싱 시뮬레이션, '멈춤–확인–검증–신고–복구' 5단계 대응 매뉴얼, 학교용 신고·대응 프로토콜, 학부모용 가정 내 결제·계정 안전 안내자료, 교육 전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 예방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br><br>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정상 메시지와 사기 메시지의 차이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는 **판별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이미 링크를 클릭했거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숨기지 않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 대응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교사에게는 실제 수업과 생활교육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사기 예방 자료와 대응 절차가 제공되고, 보호자에게는 자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가정 연계 기준**이 마련된다. 궁극적으로 학교–가정–대학이 협력하여 변화하는 사회공학적 공격 수법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기반 안전교육 모델을 확산할 수 있다. |
| | **필요역량** | 첫째, 초등 고학년의 스마트폰 사용문화와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현장 이해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스미싱·피싱·큐싱과 사회공학적 공격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정보보안 기초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도 현실감 있는 모의상황을 설계하는 **안전한 시뮬레이션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교사·보호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결과를 교육자료에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문제해결 역량**이 필요하다. 다섯째,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활동지, 카드뉴스, QR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교육콘텐츠 제작 역량**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신고·대응 절차와 가정 연계 자료를 구조화하는 **매뉴얼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 전후 판별력과 대응력 변화를 확인하는 **평가도구 설계 및 교육효과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 여덟째, 대학–학교–가정 간 협업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 |

## 부산대학교 교육특화총괄본부장 귀하